

완주 또 혁신도시? 이원택 공약 ‘형평 붕괴’ 논란

이원택 ‘완주 제2혁신도시’ 카드
조국당 ‘지역균형발전 배신’ 직격
“정책 취지 정면 충돌 선거용 구상
지역 불균형·상대적 박탈감 심화”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지난 13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완주 삼봉지구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정치적 구상과 연계해 도지사 당선을 위한 핵심 공약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고 말했다.

도당은 “그러나 이 구상은 혁신도시 제도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고 2017년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해 국가적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혁신도시는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시정과 전국적 기회 균등을 담보하는 국가적 약속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완주군은 이미 이서면 일원에 전국 최대 규모의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조성해 성장 기반을 집중 지원받아 왔고 행정구역상 완주일 뿐, 실질적으로는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의 생활·경제권 확장을 의미하는 입지였다”고 전제한 뒤 “또 다시 같은 완주권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균형발전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중적 처사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이는 법률의 정신을 무색하게 하고, 혁신도시가 지향해온 가치를 형해화하는 것이며, 도민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향이다”며 “전국 다른 혁신도시 조성 사례들과 비교해봐도 전북의 구상은 예외적이고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실례로 충북 혁신도시는 진천·음성군, 강원은 원주, 경북은 김천, 전남은

나주에 조성되었으며, 이들 모두 도청 소재지와 물리적·경제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둔 입지 선정을 통해 새로운 발전축을 구축해 왔다는 것.

조국당은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지역 내 중앙집중까지 피하려는 국책의 방향성과 의지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첫 혁신도시부터 사실상 도청 소재지와 붙어 있는 곳에 조성한 데 이어, 또 다시 완주군을 지목한다는 것은

전국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고 우려했다.

도당은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당 소속 도지사 출마예정자가 내세운 완주 중심의 제2 혁신도시 공약은 특정 지역 쏠림을 자초하는 편향된 개발 구상이자,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민감한 지역 현안을 선거용 도구로 소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며 “소외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발전 기회 상실을 심화

시키는 결정이다”고 지역별 불균형을 우려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참여정부 이래로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주도해온 집권 여당인데 그런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자당이 수립한 국가정책 기조에 배치되는 공약을 내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책적 일관성과 정당성의 붕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장정철 기자



‘농번기 맘의 주역’에 전북자치도는 지난 17일 전북농협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40여 명을 초청해 전주한옥마을을 완주 삼례문화예술회관 등 명소를 둘러보는 ‘전주 완주 역사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전북도-전북농협, 외국인 계절근로자 ‘감사와 전통체험의 날’

외국인계절근로자 40여명 초청
전주 완주 역사문화체험 행사
한지·한옥마을서 전통문화 체험

전북도는 지난 17일 전북농협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40여 명을 초청해 ‘전주 완주 역사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에 힘쓴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외국인 근로자 외에도 도와 시군 관계자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 기념 행사는 완주 우석대학교 W-SKY23에서 진행됐다. 김종훈 전북

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이창완 전북농협 부본부장이 참석해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기념촬영과 함께 이름이 한글로 새겨진 태극선 부채 세트를 선물로 받아 큰 환호와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이어 참가자들은 △삼례문화예술회관 △전주한지박물관 △전주한옥마을 등

이대통령 지지 54% 취임 후 최저 부정평가 35% ‘최고’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 조사
긍정 1%p 하락, 부정 1%p 상승
2030세대 오차범위밖 야당 지지
내년 지방선거 여야 박빙 예상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취임 이후 최저치인 54%, 부정평가는 최고치인 35%로 나왔다.

지난 1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추석연휴 전인 3주 전의 조사때보다 1%포인트 낮아진 54%, 부정평가는 35%로 전주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 성향 진보층(86%),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78%)과 보수층(60%)에서 두드러진다. 중도층은 53%가 긍정적, 무당층에서는 공·부정 각각 37%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74%·64%로 가장 높고, 이와 연령대에서는 공·부정률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크지 않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각 3%,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순이었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8%다.

추석 전과 비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1%포인트씩 높아졌다.

이처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6.3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 시각은 달랐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 관련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 묻은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등하게 나타났다.

진보층의 73%가 여당 승리, 보수층의 62%는 야당 승리를 기대한 반면, 중도층에서는 여 38%, 야 36%로 비등했다.

24%는 의견을 유보했으며, 중도층의 유보가 25%로 가장 높았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의 경우 여 39%, 야 38%로 팽팽했고, 경기도는 40% 대 40%로 아예 동률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세대의 경우 야당 승리를 바라는 쪽이 오차범위밖에서 많았다. 18~29세는 여 26%, 야 40%였으며, 30대는 여 31%, 야 38%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기자

제31회 정읍시민의 날

2025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기념식 10:00

2025. 11. 1.(토) 09:20~17:00

정읍시

[장 소]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138-5)

[참석대상]

정읍시민 누구나

[주요내용]

식전공연, 기념식,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폐회식 등

[식전공연]

정읍시립국악단, 국악인 신동재, 태권도공연단 싸울아비

전북도, 불법전용농지 시·군 합동 교차단속 착수

오늘부터 3주간 집중 현장단속
농업시설 상업용 전용 차단
바주기식 점검 원천 봉쇄
불법 농지 원상복구·고발 병행

전북도가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농업 시설의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도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 간 도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교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

호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점검의 일환이다. 특히 농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비농업용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용 시설이 상업용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유휴농지 ▲버섯재배사·축사 등 농업시설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경작을 방기한 사례 ▲농업인 창고·농어업시설을 카페, 음식점, 체형시설 등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전북도는 일선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 43명으로 구성된 15개 조사반을 편성해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시군 간 교차 조사를 통해 동일 지역 내 이해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바주기식 점검을 차단하고, 단속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시군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와 우수사례를 시군 간 공유해, 현장 단속 역량을 높이고 사전 예방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에 대해 “농지는 도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식량 생산의 근간으로 불법 전용은 농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민 국장은 이어 “최근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농업시설을 불법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 전용 농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차 조사를 실시하고 사례를 공유해 현장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오늘부터 8일간 임시회 개최

조례·동의안 119건 심사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포함

전북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0일 제422회 임시회를 열고 27일까지 8일 간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및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33건과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한 각종 동의안 85건 등 접수된 의안 119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20일 개회식 후 지역 현안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또‘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 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5년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북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직업계고 대상 ‘선취업 후학습’ 계약학과 신설

원광대 중심 산학협력 본격화
도내 첫 농생명·바이오 학과 추진
취업·학위 병행 전북형 모델 시도

전북도는 지난 17일 원광대 대학본부에서 도교육청, 원광대학교,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대두식품,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입주기업 협의회와 함께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과 학습을 연계한 ‘선취업 후학습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 RISE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혁신 전주기 인재양성 모델로,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학위 취득과 역량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선취업 후학습형 계약학과’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도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산업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직업계고 연계 농생명·바이오 분야 계약학과 운영 ▲취업연계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대학·기업-공공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원광대는 2026년도 개설을 목표로 도내 최초의 ‘선취업·후학습형 농생명·바이오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푸드테크·바이오 융복합 전공을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지역 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동시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RISE사업을 통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교육청은 직업계고 연계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채용, 징구 연계 체계를 마



전북도는 지난 17일 원광대 대학본부에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과 학습을 연계한 ‘선취업 후학습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도>
연한다. 산업체는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을 담당, 대학은 산업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과 학사 운영을 맡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단기 취업이 아닌 지역 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정철 기자

전북 푸드테크 혁신 AI로 연다…‘K-FOOD NEXT 포럼’ 성황

AI 기반 커스텀푸드 전략 모색
전북 케어푸드 산업벨트 시도

전북도가 지난 17일 전북바이오 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K-FOOD NEXT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가 이끄는 커스텀푸드(개인맞춤형식품) 제조 혁신’을 주제로 열렸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식품연구원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했다. 푸드테크 관련 기업,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산업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식품산업 환경 속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커스텀푸드 제조 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와 연구기관, 정책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푸드테크 기술 트렌드와 정부 정책 대응 방향, 산업 확

산 전략 등을 논의하며 전북형 커스텀푸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에서는 맞춤형식품 분야 선도기업인 메디솔라 이돈구 대표가 ‘커스텀푸드의 스마트 제조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월드푸드테크협의회 이상준 실장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이은주 PD가 정부의 푸드테크 정책 방향과 산업 육성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전주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반 식품제조 기술의 확산과 산업현장 적용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나눴다.
전북도는 ‘지역과 산업이 건강한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벨트 조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하고, AI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결합한 커스텀푸드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 17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K-FOOD NEXT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총 1,875억 원 규모의 14개 연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리딩기업 3개 육성, 관련 기업 40개사 확대, 2,300명 신규 고용 창출로 전북을 커스텀푸드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다양하고 유연한 생산 공정은 식품산업 미래를 열어갈 핵심 분야”라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맞춤형 식품 분야에 AI 기술 연계 등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밀폐공간 질식 사고 기본 안전 위반이 태반”

안의원 “사고 대부분 안전불감증
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해야”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장은 17일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구 제공,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질식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이 농도측정을 하지 않았고,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9건(64.2%)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다. 이번 통계는 사법처리된 사례만 포함돼 실제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 중인 금천구·계양구 맨홀 사망사고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질식사망사고는 38건, 이 중 맨홀 내 사고가 9건(23.6%)이다. 사고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8건으로 증가했다.
안 위원장은 원인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 부실을 지적했다.

/서울=김영목기자

타면 착, 안전도착

올바른 안전띠 착용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차 타면 꼭 지켜야 할 안전띠 안전수칙

택시 탑승시
뒷좌석 안전띠는
필수!



어린이도
안전벨트 필수
착용해야 해요!



낮은 속도에서도
뒷좌석에도,
안전띠 꼭 착용 해 주세요!



과학이 움직이는 세상 ‘전북과학축전’ 성황

과학기술인대상 시상 110여개 부스 운영 등 지역 과학기술 위상 제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제19회 전북과학축전’이 ‘과학이 움직이는 세상, 기술이 여는 미래’를 주제로 지난 17일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중훈 경제부지사와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부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운영임 교육국장 등 과학기술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서는 제5회 전북 과학기술인대상 시상식과 함께 개막 퍼포먼스, 과학 체험부스 투어 등으로 축제의 막이 올랐다.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 대상 수상자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성장지원과 지

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다이나믹 인더스트리 김현수 대표이사 △전북 대학교 윤영상 교수 △한곡식품연구 원 정창화 본부장 등 3명이 선정돼 메 달과 상패를 수여받았다.

올해 과학축전은 장소를 전주대 대 운동장으로 이전해 110여개 부스를 운영해 더욱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관 랑객들이 과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 다.

시원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전은 기존 실내 행사장의 제약을 벗어나 관람객들에게 더욱 자 유롭고 개방적인 과학 체험 기회를 제 공한다.

‘피지컬AI 창의과학탐험대’와 ‘사이 언스 마이크’ 등의 프로그램은 LEGO 기반 로봇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물리·코딩 원리를 배우고, 학생들이 자 신의 과학 아이디어 발표함으로써 과 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우는 기 회를 제공한다.

전북과학축전은 지난 19일까지 3일



‘제19회 전북과학축전’이 ‘과학이 움직이는 세상, 기술이 여는 미래’를 주제로 지난 17일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간 계속됐으며, 사이언스 일루전, 버블 랍쇼, 솜사탕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과 학문화 공연과 함께 에그드랍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개

/정혜민 기자

전북조달청-전북중기청, 지역 AI기반 혁신기업 현장 소통

(주)텔로스 방문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 정책 등 논의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은 지난 17일 전주시 완산구 소재 ㈜텔로스(대표 황근별)를 방문해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두 기관이 지역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조달 및 중기 지원 정책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추진한 ‘합동 정책 현장방문’의 일환이다.

이날 기업 현황 청취와 애로사항 논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컨설팅

등도 함께 진행됐다.

(주)텔로스는 2020년 설립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AI 기반 디지털트윈, XR/MR 교육 솔루션, 데이터 플랫폼 등 첨단 ICT 융합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AI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지역 기업의 공공조달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성장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희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도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디지털 혁신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지방조달청-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7일 전주시 완산구 소재 ㈜텔로스를 방문해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 성료

기업인-소상공인 위한 사랑·문화 나눔 확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은 지난 16일 부산 벡스코(BEXCO) 오디토리움에서 ‘Lovely Concert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바쁜 일상으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중소기업계 사랑·문화 나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올해 6회로 예정된 권역별 콘서트 중 네 번째로 개최됐으며 영남 지역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2천여명이 참석했다.

2025 ‘Lovely Concert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 호남권 일정은 11월 20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콘서트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윤승업 지휘자, 진성원 테너, 김병민 바리톤, 박소영 소프라노, 고아라 재즈보컬리스트, 하모나이즈 쇼파이어 그룹 등 국내 최정상 출연진들이 대중에게 익숙한 클래식 명곡, 영화 OST, 추억의 팝송 등을 연주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곡의 분위기와 내용에 맞게 제작된 영상을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함께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앵콜곡으로 부산지역 관람객들을 위해 ‘돌아와요 부산항에’와 ‘부산 갈매기’를 선곡해 관람객들도 한마음으로 열창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 콘서트를 통해 힘을 얻어간다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지난 16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Lovely Concert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를 개최했다.

가족들이 많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문화·예술을 통해 바쁜 일상으로 지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하며 사

/정혜민 기자

‘제220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개최

내달 11일 최재천 교수 초청 ‘다양성과 공존’ 주제강연

사회생물학자이자 세계적인 석학인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전주시민들과 만난다.

전주시는 오는 11월 11일 오후 7시, 덕진예술회관에서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제220회 열린시민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최재천 교수는 ‘다양성과 공존, 손잡지 않고 살아남는 생명은 없다’를

주제로 인간과 자연에 관한 통찰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강연 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최재천 교수와 시민들이 직접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이번 열린시민강좌에서는 사전 공연으로 전주시립교향악단의 피아노 3중주가 더해져 가을밤의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늘부터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ejeonju.go.kr)을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박남미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전주시 열린시민강좌는 인문, 생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저명 강사와 시민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고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전주시 평생학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9월 전북도 고용률 65.2% 취업자 100만8천명

2025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률은 65.2%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취업자는 100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1천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70.1%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으로 나타났다.

2025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 실업률은 1.7%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다.

실업자는 1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 증가로 확인됐다.

/정혜민 기자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추가 모집

시설원에 축산 각 1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현상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교육기관 2개소(시설원에 순천대, 축산: 연암대)를 지정·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총 7개 교육과정을 통해 약 1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후속과정 개설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늘어나는 현장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시설원에 및 축산 분야 각 1개소를 선정해 총 2개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고향사랑기부 첫 지정기부사업 모금 시작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첫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하고 20일부터 본격적인 모금에 나선다.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직접 기여하고 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형 기부문화 확산의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첫 지정기부사업은 △‘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사업’이다.

‘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에 생필품과 학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 전액을 고향사랑기부금으

로 마련한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생활지원센터 이동차량을 교체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이 투입된다. 차량이 유일한 이동수단인 시각장애인의 병원 방문, 장보기, 재활훈련 등 일상 이동을 안전하게 돕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와 복지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라며 “도민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위탁아동과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호남·제주지역 44,000 가구 대상

국가데이터저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정구현)은 2025년 지난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호남·제주지역 44,000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

응답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인터넷 참여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해 편리하게 인터넷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시·군·구별 고용률·실업률 등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

가 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한다.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는 2026년 2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4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현황은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구현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립극단, 29일 정기공연 ‘감찰관’ 막 올려

덕진예술회관에서 29~31일까지

전주시립극단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매일 오후 7시 30분 덕진예술회관에서 제133회 정기공연인 ‘감찰관’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작품은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선구자인 니콜라이 고골의 대표 희극 ‘감찰관’을 전주시립극단만의 시선으로 새롭게 각색해 선보이는 무대로, 사회의 부조리와 인간의 허세를 풍자적으로 드러내는 이 작품을 통해 웃음 속에 날카로운 통찰을 담아 현대 사회의 자화상을 비추는 것이 특징이다.

이야기의 배경은 부패한 관료들로 가득한 지방 소도시에 감찰관이 시찰을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시장과 관리들이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허둥대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들은 때마침 나타난 한 여행객 ‘홀레스타코프’를 감찰관으로 착각하고 아첨과 뇌물을 바치며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고, 홀레스타코프는 돈을 챙겨 달

아나 버린다. 뒤늦게 진짜 감찰관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상황은 절정에 이른다.

전주시립극단은 이번 ‘감찰관’ 공연을 통해 부패한 권력에 대한 단순한 풍자를 넘어, 인간의 욕망과 허세, 체면과 두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사람’의 모습을 그린다. 특히 지난 2022년 연극 ‘반조끼리 자작’으로 이데일리 문화대상 등 여러 연극상을 수상한 박성찬(창작조직 선천파 대표) 객원연출이 참여해, 원작의 블랙코미디적 요소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현실 풍자의 밀도를 한층 높였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연은 전주시립극단이 고전 희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작품으로, 유쾌한 웃음 속에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서 “관객들이 즐겁게 웃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 공사현장 산재 관리 ‘허점’

28건 기술지도 미이행 백승아 의원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해야”

전북을 포함한 전국 학교 공사현장에서 최근 4년간 산업재해로 24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도 1명이 사망했으며, 전북교육청이 발주한 공사 중 일부에서 산재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안전관리 부실이 지적된다.



백승아 의원

에서 산업재해가 968건 발생했다.

산재 사고는 2022년 129건에서 2024년 39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53건이 발생했다. 사망 사고는

적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 현장

24건으로 이 중 19건이 추락으로 인한 사고였다.

전북교육청은 1,900건의 공사 중 28건에서 착공 전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주자는 공사 계획 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교육청의 안전정책이 학생과 교직원 중심으로 짜여 있어 하청

노동자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 공사가 외주화되면서 현장 위험 파악이 어렵다”며 “교육청의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청이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IB 미래교육 포럼 개최

IB 철학 이해·공감대 확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B 미래교육 포럼(주제 아이의 시선,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IB 교육)’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IB 철학과 운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학교 현장의 수업·평가 혁신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주제발표 시간에는 IB 교육 전문가, 학부모, IB DP(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등이 참여해 각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IB의 의미와 사례를 나눴다.

특히 IB DP 과정의 수업과 평가 사례, IB 활동을 통한 대학 진학 사례 등 실질적인 내용이 공유되면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사전 접수된 질의와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IB의 수업·평가 사례, 대학 진학과 도내 안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포럼은 교실의 수업·평가를 넘어 학부모와 교원이 함께 전북의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시간이었다”며 “아이의 시선에서 학습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응원하는 전북 IB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삼우경로당’ 새단장…지역 공간 복지 개선 앞장

학생교수지자체 협력 맞춤형 생활공간 재탄생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주거환경학과(학과장 장미선)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역사회 공간복지 구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취약 노인가구 및 경로당 공간개선 실증사업의 첫 성과로 ‘삼우경로당’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지난 16일 입주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지역 산업체 등과 협력해 진행했으며, 입주식에는 어르신, 전주시청 관계자, 전북대 교수 및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거환경학과는 2023년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 주거공간과 노후 공공시설 개선을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인주택 2곳과 경로당 1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삼우경로당은 그 첫 완료 사례로, 전주시청과 협력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어르신 맞춤형 공간 진단과 설계, 시공까지 전 과정을 학과가 직접 수행했다.

특히 노후화와 안전 미비로 불편했던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친화형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삼우경로당 소병서 회장은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었던 벽이 새로 바뀌고, 손잡이와 문도 편리하게 개선돼 어르신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사업에는 교수진뿐 아니라 학부생들도 대거 참여해 전공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고 재능기부를 실천했다.

특히 생활과학계열 1학년 신입생들도 함께하며 전공의 사회적 가치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자발적으로 참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는 취약 노인가구 및 경로당 공간개선 실증사업의 첫 성과로 ‘삼우경로당’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지난 16일 입주식을 가졌다.

여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현장 경험을 쌓았다.

장미선 학과장은 “대학의 인적·학문적 역량이 지역사회와 만날 때 더 큰 가

치가 만들어진다”며 “앞으로도 대학-지자체-지역기관이 협력하는 공간복지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강호항공고, 군 특성화 교육 확대

병과별 실무 중심 교육 체계 구축

강호항공고등학교(교장 염택선)가 군 특성화 교육을 확대한다.

강호항공고는 지난 2008년부터 국방부 지정 군 특성화고로 공군 항공정비 군특성화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해군 항공정비 군특성화반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는 국방부의 군 기술인력 양성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군의 항공정비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강호항공고는 공군과 해군 군 특성화반을 병행 운영해 학생들의 병과 선택 폭을 넓히고, 병과별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군 항공정비반은 항공기 엔진 및 기체 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문부사관 입관 후 6개월에서 48개월간 복무하고 장기 부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해군 정비반은 항공정비와 전자장비 운

용 교육을 포함하며, 해상 항공기 정비 분야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두 반 모두 군 위탁 실습, 군 전문가 특강, 항공기 실물 정비 실습 등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강호항공고는 항공기계과, 항공정비과, 항공전자과(공업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2학년 2학기에 공군 및 해군 군 특성화반을 각각 선발한다.

학생들은 군 실무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을 병행할 수 있고, 졸업생은 군 복무 이후 항공산업 분야 취업과 대학 진학이 모두 가능하다.

염택선 교장은 “공군 군 특성화반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군 군 특성화반을 추가해 군 기술인력 양성 기반을 확대하게 됐다”며 “군 협력형 교육 체계를 통해 학생들이 군 복무와 학업을 연계한 실무 경력 쌓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직업계고 교원 취업역량강화

중등 직업교육 정책 이해 등 교육과정·정책 이해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라한호텔에서 ‘2025년 직업계고 교원 취업역량강화 및 현장실습 연수’를 운영한다.

연수는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취업 연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실습 운영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며 취업률 제고를 위한 학교 지원체계 구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중등 직업교육 정책 이

해 △현장실습 운영 전략 △학생 취업지도 전략 등으로, 교원들의 현장실습 운영 능력과 취업지도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전북교육청은 연수를 통해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의 취업지도 및 현장실습 운영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형식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앞으로도 직업계고 교원의 전문성과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아름다운 가을 산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환경보호 수칙도 지키자!

쓰레기는 확실히 처리하기

내가 만든 쓰레기는 모두 가져가는 것이 원칙!

자연그대로 보전하기!

산행중 아름다운 자연에 흘러 꽃을 꺾거나, 예쁜돌 챙기는 행위 금지!

야생동물 존중 하기

등산 중 마주친 야생 동물은 위협하거나, 해치지 말아 주세요.

익산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8명 선발·22일까지 접수

익산시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에 대비해 ‘하반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 감시원’을 배치·운영한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민간 감시원 8명을 선발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익산시에서 1년 이상 연속해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이며,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민간 감시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응시원과 구비서류를 준비해 환경관리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민간 감시원은 4인 1조 편성돼 오는 11~12월 활동하며 △대기·악취 배출업소 환경요영행위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조치 시행 여부 △불법소각 행위 등을 감시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주요 배출원을 조기에 찾아내고, 불법 배출 행위를 신속히 차단해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식객 허영만과 함께하는 익산 미식여행’ 성료

미식도시 익산시가 허영만 작가와 함께 지역의 미식과 문화를 전국에 알렸다.

익산시는 지난 16~17일 ‘식객 허영만과 떠나는 익산 미식 여행’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만화 ‘식객’과 방송 프로그램 ‘백반기행’으로 널리 알려진 허영만 작가와 함께 익산의 음식문화를 재조명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 마련됐다.

행사는 허영만 작가와 함께 지역 맛집을 탐방하는 미식 여행 형식으로 진행됐다. 푸부카페, 진미식당, 장흥식당, 백인숙 꽃게장, 다솔향 등 5곳의 음식점을 방문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와 사인회가 열렸다.

시는 이번 미식여행을 계기로 익산의 맛과 이야기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허영만 작가의 대중적 인지도를 활용해 미식도시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음식은 가장 친근하고 효과적인 지역 문화 자원”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익산의 맛을 즐기며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정읍시, 한·중·일 교류 무대에서 25년 자매도시 우정 다져

정읍시가 25년간 이어온 자매도시와의 우정을 다지고, 한·중·일 3국 지방정부 교류의 장에서 정읍의 비전을 공유하며 글로벌 도시 외교의 보폭을 넓혔다.

정읍시 대표단은 지난 1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서주시와 옌청시를 방문해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서주시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박일 시의회의장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2명이 동행했다.

먼저 대표단은 지난 14일, 자매결연 25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쉰이닝현 아동화 센터에서 열린 이 전시에는 정읍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사진 40여 점이 걸려 현지인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어 선원평 서주시장, 왕귀창 비서장 등 주요 지도자들과 만나 문화·교육·경제 등 다방면에서의 실질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학수 시장은 16일 본회의 발표자로 나서 ‘생태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정읍의 사례를 소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시장은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월영습지와 솔티숲, 구절초 지방정원, 내장산 국립공원 등을 성공 사례로 제시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도시로서의 정읍의 비전을 공유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성과 인정

사업비 최대 5억 확보 교육공동체지원센터 구축 등 26개 사업 운영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익산시는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 평가’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최대 5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이후 1년간 진행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대학이 협력해 추진한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중에서도 선도지역으로 선정됐으며, 2026년까지 총 229억 원 규모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교육 혁신·발전을 위해 시는 익산교육지원청, 원광대학교와 협력해 교육 거버넌스 기구인 ‘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26개의 교육혁신 사



익산시는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 평가’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최대 5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 중점 사업인 생명산업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원광대학교 의·치·한·약학과 의 지역인재전형을 80%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생명산업 고등산학관 킷랩’을 운영했다.

또 유학생 보건의료 인력양성, 대학자원을 활용한 방과후학습관 ‘더봄’ 운영,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사업을 펼쳐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생활인구 전북 1위 ‘우뚛’

평균 체류일수 3.9일 4.9일 숙박 전국 평균 상회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정읍시가 ‘생활인구’를 늘리는 체류형 도시로의 전환에 성공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정읍시가 전북 10개 인구감소지역 중 2024년 4분기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그 성과를 입증했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에 통근·통학·관광 등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인구까지 더한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실제 지역의 활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정부의 재정 지원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정읍시는 올 1분기 94만

2495명(월 평균 31만 4165명)의 생활인구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조사의 세부 지표들은 정읍이 가진 매력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준다. 체류인구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5만 1000원으로, 도내 인구감소지역 평균(12만 2000 원)을 훌쩍 뛰어넘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을 증명했다.

평균 체류일수는 3.9일(전국 평균 3.5일), 숙박일수는 4.9일(전국 평균 3.9일)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는 정읍이 당일치기 여행지를 넘어 장기간 머물며 즐길 거리가 풍부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48.6%에 달하는 높은 재방문율이다. 전국 평균(39.3%)보다 9%p 이상 높은 수치로, 방

문객 10명 중 거의 5명이 정읍을 다시 찾는 셈이다. 이는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도시’라는 정읍시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러한 성과는 다양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가 각종 대회를 유치하며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했다.

이학수 시장은 “다양한 체류형 관광자원과 지역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24일까지 화학안전주간 행사 개최

화학사고 대응 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도모

‘화학사고 없는 안전도시 군산’ 실현을 위해 오늘부터 24일까지 ‘제3회 군산시 화학안전주간’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최근 잇따른 화학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학사고 대비·대응 체계 강화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확산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 주최로 진행되는 행사에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전북지방환경청, 전북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전북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OCI(주), PKC(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삼양이노켄(주), ㈜디에스단식, ㈜성일하이텍, 대상(주) 전분당, ㈜SH에너지화학, ㈜유니드비티플러스, ㈜전보비엘에스, 제이아이테크(주), ㈜피지티, 이피캠택(주) 등 다수의 기관 및 기업도 함께 한다.

주 행사인 기념식은 24일 오후 2시, 군산대학교 황룡문화원 노관순홀에서 열리며,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황룡문화원 광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25개의 체험과 전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현숙 군산시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제3회 군산시 화학안전주간이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학안전 사업 등 각 기관의 역할을 시



민들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태인면 일원, 신규 일반산업단지 지정

108만 3000㎡ 부지 국비 포함 총 2,147억 규모

정읍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정읍시는 태인면 일원 108만 3000㎡ 부지가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태인 신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완료하고 태인면 일원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국비 66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147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지정면적은 108만 3000㎡·산업시설 면적은 65만 1000㎡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수요임증 조정회의와 산업집적정책심의회를 모두 통과했다.

새롭게 조성될 태인산단은 태인IC와 국도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

고, 인근 산업단지·농공단지와와의 연계가 쉬워 기업 간 협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로 평가된다. 향후 시는 산업단지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개발계획 용역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일자리·인재 ‘탄남의 장’ 열린다

23일 하반기 취업박람회 개최

구직자에게는 희망의 일자리를, 기업에는 꼭 맞는 인재를 찾아주는 ‘탄남의 장’이 정읍에서 열린다.

정읍시 일자리지원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읍시 실내체육관에서 ‘2025 정읍시 하반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성공적인 연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일자리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참여 기업·기관 관계자들과 사전 간담회를 열고 행사 운영 방향과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내실을 다졌다.

행사 당일 실내체육관에는 기업

별 1:1 현장 면접이 진행되는 ‘채용관’과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부스’가 운영된다.

특히 구직자들의 자신감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눈길을 끈다. 이력서용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주고, 전문 컨설턴트가 어울리는 색을 찾아주는 ‘퍼스널컬러 진단’, 흥미를 더하는 ‘취업 타로점’과 ‘AI체험관’ 등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일자리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구인·구직 행사를 넘어, 지역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특별전

21일~내년 2월 15일까지

익산시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과 ‘이리시·익산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백제의 찬란한 역사를 조망하는 특별전을 선보인다. 익산시는 백제왕궁박물관에서 21일부터 2026년 2월 15일까지 ‘세계 속의 백제, 백제 속의 익산’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1부 ‘세계유산, 백제를 품다’에서는 세계유산 등재의 의의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지닌 보편적 가치를 소개한다. 2부 ‘익산, 백제의 미래를 설계하다’에서는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백제 무왕이 꿈꿨던 새로운 왕도의 비전과 불교문화의 융성을 조명한다.

3부 ‘10년의 발자취, 세계와 만나다’

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이뤄진 발굴·보존·학술 연구, 시민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살아있는 세계유산 도시 익산’으로 성장한 과정을 보여준다.

4부 ‘백제, 미래를 여는 유산’에서는 시민과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유산의 의미를 제시한다. 특히 지난 5월 열린 ‘제15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수상작도 함께 전시돼, 미래 세대가 바라본 백제문화유산의 가치와 상상력을 시민과 공유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백제문화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미래 세대에게 살아있는 유산의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며 “많은 시민이 방문해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익산의 세계유산을 직접 느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군산시 보건소가 17일 군산월명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탄저균 생물테러 사건 발생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초동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해 △생물테러 대응 체계 점검 △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와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공고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능 훈련 및 초동대응팀의 현장 대응 훈련, 자원 동원 등 종합적인 대응 역량 강화했다.

또한 질병관리청·호남권질병대응센터·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군

산시 관계 부서·군산경찰서·전북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국립군산검역소·육군 제9585부대 1대대 등 관계 기관 및 관계자 80여 명이 동석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며 현장감을 높였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생물테러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초동대응기관과의 공조 협력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서천 어르신들, 생활체육 친선교류

군산시와 서천군 어르신들이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서천·군산 어르신 생활체육 친선교류대회’가 지난 17일 군산수송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 김윤태 회장이 힘찬 대회 선언을 통해 양 도시 노인 회원들의 화합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어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이래범 회장이 대회사를 통해 “생활체육을 통

해 건강을 지키고 친선을 다지며, 앞으로도 군산과 서천이 함께 어르신 복지과 여가문화 증진에 힘써 나가자”라며 시작을 알렸다.

이어 강임준 군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군산과 서천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열어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 24일 개막

와인·재즈 등 즐길거리 풍성…24~26일까지 변산해수욕장서 개최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부안 변산해수욕장에서 열린다

‘와인, 재즈 그리고 붉은 노을’을 주제로, 레드와인페스타, 제3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 붉은노을 재즈페스티벌, 스카이 갤러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레드와인 페스타’는 부안 오디오와인, 세계와인을 아름다운 변산의 자연경관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감성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논란할 음료인 오디오에이드까지 준비돼 있어 자가용을 가져온 방문객들도 부담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부안

붉은노을동요제에는 189팀이 접수한 가운데 치열한 심사를 거쳐 통과한 25팀이 최종 무대에 오른다.

25일, 26일 양일간 예선과 결선이 순차적으로 치러지며 참가 어린이들의 실력이 상당히 붉은노을축제의 또 다른 관람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산해수욕장 모래사장에 조성되는 대형 모래조각도 새로운 볼거리다.

부안군 대표축제 캐릭터인 ‘부안몬 프렌즈’를 주제로 가로 12미터, 높이 8미터의 대형 모래조각이 붉은노을축제만의 특별한 포토존이 될 전망이다.

또한 변산해수욕장의 하늘을 수놓는 대형연과 야간에 펼쳐지는 LED연의 향연인 ‘스카이 갤러리’는 어른들에게는 어릴적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선물할 계획이며, 24일 불꽃놀이 후에는 ‘여름날 우리’, 25일 불꽃놀이 후에는 ‘썸’이라는 섹시 시네마를 진행해 가을밤의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김종문 부안군 대표축제추진위원장은 “부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



한 프로그램을 한자리에 담은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에 가족, 연인과 함께 방문하시어 새로운 가을날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0월 24일 개막식에서는 김필과 케이시가, 25일에는 스텔라장이, 26일 폐막식 무대에는 윤하가 축하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행사기간 3일간 불꽃놀이를 진행해 행사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새울전자민원창구’ 임시 운영

국민신문고 중단 대응

고창군은 새울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해 국민신문고를 대체할 임시 민원창구를 지난 17일부터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가전산망 화재로 인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이 중단된 상황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내 새울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해 생활 불편, 도로·교통, 환

경 등 단순 민원과 일반 질의·건의 성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 기관의 민원은 기존 국민신문고와 달리 자동 이송되지 않아, 해당 기관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정장은 “국민신문고 중단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임시 온라인 민원창구를 운영해 시스템 복구 시까지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청우평생학습관 도배실무반, 재능기부

부안군 청우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도배실무과정 수료생과 교육생들이 17일 도배 강사와 함께 관내 취약계층 1인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에는 상반기 과정을 수료한 학습자 4명과 현재 교육 중인 학습자 4명, 그리고 평생교육 도배강사가 참여해 의미있는 나눔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실습을 통해 익힌 도배 기술을 활용해 노후된 벽지를 새로 교체하며 이웃에게 쾌적하고 따뜻한 생활공간을 선물했다.

‘도배실무과정’은 부안군 평생교육팀이 추진하는 학습형 일자리 모델의 일환으로,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학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도배실무과정은 기술 습득을 넘어, 학습의 결과를 지역사회에 나누는 모범적인 평생학습 실천사례”라며 “군민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26일까지 도로명주소 SNS 초성퀴즈 이벤트 열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주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오늘부터 26일까지 도로명주소 초성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물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기초번호판 등이 있으며 그중 기초번호판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해 교통신호등, 가로등, 전주 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판으로,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김제시 SNS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QR인증 후 서식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SNS 초성퀴즈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이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백종기 기자



고창가족센터 ‘학력취득 지원 프로그램’ 검정고시 9명 합격

고창군가족센터(센터장 정혜숙)가 운영하는 학력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1·2차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서 초졸 2명, 중졸 3명, 고졸 4명이 합격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이에 센터는 지난 16일 합격자들을 초청해 간단담 및 합격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간단담에서는 그동안의 학업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과 도전의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학습 계획과 진로 목표도 함께 공유했다.

정혜숙 센터장은 “가족과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고창군민의 학력 증진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해리면 지사협,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복한가을 나들이

고창군 해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재택, 홍정목)가 지난 16일 관내 어르신들과 협의체 위원 등 20명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을 나들이’를 진행했다.

상하농원에서 농원을 산책하고 직접 소세지를 만들며 체험도 하고, 카페에서 휴식을 즐기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고창상하농원과 해리면 자율방범대의 도움이 있어 더욱 내실있게 진행됐다.

이재택 위원장은 “이번 나들이로 어르신들께 활력과 웃음을 배가 시키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정목 해리면장은 “언제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사업 진행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북 서남권 400MW 해상풍력’ 부안 위도서 본격

‘서남해에 거대한 바람’ 해상풍력 시범사업 닷 올려

부안 위도 앞바다에서 서남해 해상풍력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한국해상풍력㈜(한해풍)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고성장기 경쟁입찰’에서 전북 서남권 400MW 시범사업의 우선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10여 년간 준비해온 서남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

한해풍은 2011년 정부의 서남해 해상풍력 계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실증단지 운영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9월 정부로부터 공식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며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약 3조 3천억 원, 공사 기간 78개월 규모다. 단순한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넘어, 서남해 2.4GW 집적화단지 조성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수록 어업 손실 보상과 지원사업이 가속화되고, 주민 이익공유금만 연간 243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해상풍력 관련 기업 유치, RE100 국가산단 조성, 지방세 확충,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해풍은 지역 축제 후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민과의 신뢰를 다져왔다.

회사는 앞으로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지역 선박 및 업체 활용 ▲주민 이익공유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지역 상생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해풍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은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해상풍력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올해 3분기 공약 이행률 86.87%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 통해 군민 약속 지킬 것”

고창군이 지난 16일 군정 2층 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군수, 국장,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민선8기 고창군 공약사업은 6대 분야, 15대 전략, 80개 공약사업으로 17개 사업은 완료됐고, 42개 사업은 이행 후 계속추진으로 분류돼 총 59개 사업이 완료됐다.

완료된 주요 공약사업은 △고창읍성 한옥·민속마을 조성 △교통약자 1천원 택시 운행 확대 △정소년 문화공간 확충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 설치 △저정년 농림축수산업 기업승계 활성화 등이 다.



이행 후 계속추진 사업은 공약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용자 지원 확대 △부리고창인 정책적 지원 우대 등 지금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사업 △농기계구입지원 확대 및 첨단농기계 확충 등이다.

△콘도·호텔 등 대형숙박시설 유치 △고창군 파크골프장 확충사업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약사업 등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고 차근차근 정

상 추진 중이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군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군정을 펼쳐가겠다”며,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값진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수요일엔 서해랑길’ 대장정 마무리

6주간 총 2백명 이상 참여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한 ‘수요일엔 서해랑길’ 프로그램이 지난 15일 여섯 번째 회차를 끝으로 올해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코리아둘레길 사업의 일환으로, 고창 서해랑길을 매주 1코스씩 완주하는 형태로 기획·운영됐다. 회차별 30여 명, 총 200명 이상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고창의 바다와 염전, 갯벌, 마을길 등 서해안 특유의 자연경관

을 따라 걸으며 지역의 매력을 체험했다. 특히 생물권 스토리텔러의 전문 해설이 함께해 고창의 다양한 인문·자연 환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조창환 상임이사는 “6주간 진행된 ‘수요일엔 서해랑길’은 고창의 대표 관광자원인 서해랑길의 아름다움과 걷기의 즐거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참가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도보 여행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드론배송 실증 시연회 성황리 개최

미래형 스마트 물류도시 식품사막화 해소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6일 생산공원에서 ‘드론배송 실증 시연회’를 개최하고,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물류배송 기술을 성공적으로 시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시가 주최하고 ㈜은누

리무인항공과 ㈜지에이항공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 ㈜지에이항공이 자체 개발한 국산 자율비행 배송용 드론을 선보였다.

또한 ㈜은누리무인항공은 ㈜지에이항공이 개발한 드론을 활용해 생산공원

에서 소산마을 경로당까지 왕복 7km 구간을 비행하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치킨을 배송하는 시연을 진행했다.

시는 드론배송 사업을 통해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드론산업의 선도도시이자 첨단 물류거점 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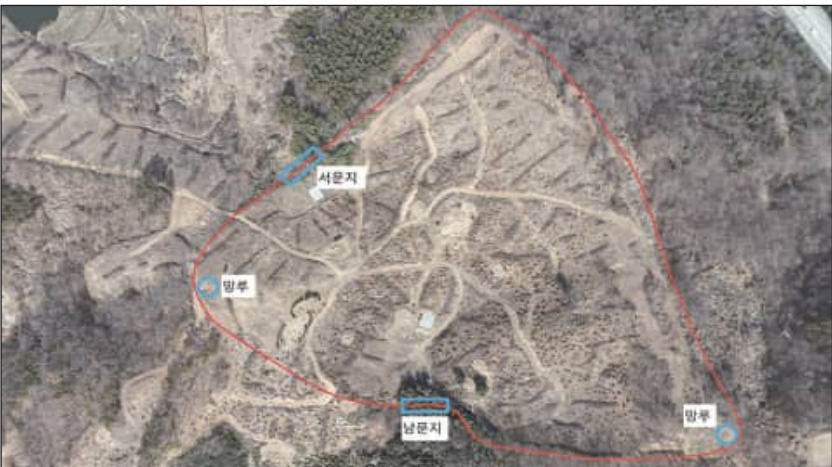
완주 상삼리산성, ‘백제 만경강거점’ 확인

발굴조사 결과 통제 핵심 성곽
남성벽서 토석혼축 구조 밝혀져
백제 만경강 지배체제 연구 단서

완주군은 ‘완주 상삼리산성 유적 학술 발굴조사’ 결과, 상삼리산성이 백제 사비기에 축조된 만경강 유역 지배의 핵심 거점 성곽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상삼리산성은 둘레 986.5m 규모의 백제 성곽으로, 1960년대 조사 이후 보존 조처와 학술 연구가 미흡해 훼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국가유산청의 전액 국비 지원으로 지난 9월부터 추정 남문지 및 남성벽을 중심으로 긴급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남성벽은 너비 약 10m, 최대 높이 3.75m에 달하며 흙과 돌을 혼합해 쌓은 토석혼축(土石混築) 구조임이 확인됐다. 특히 성벽 안쪽 상층부에는 빗물 집투를 막기 위해 다량의 백제 기와를 점토 덩어리와 함께 깔아 축조한 흔적이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완주군은 상삼리산성이 백제 사비기에 축조된 만경강 유역 핵심 거점 성곽으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상삼리산성 범위와 주요 시설. <사진=완주군>

있다. 바깥쪽 석축은 토성벽을 지탱함과 동시에 지하수 배수를 위한 구조로 추정된다.

또한 성벽 안쪽 평탄지 시굴조사에서는 집수시설로 추정되는 점토층, 주거지 및 건물지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됐으며, 다량의 백제 기와와 토기류가 출토돼 상삼리산성이 백제 사비기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훼손 위기에 놓였던 상

삼리산성의 구조와 축성 시기를 규명하고, 향후 정비·보존 대책 마련의 기초를 다졌다. 특히 상삼리산성이 상운리고분, 운교유적 등 주변의 마한·백제 유적들과 함께 백제의 만경강 유역 진출과 지배체제 변화를 밝히는 핵심 자료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발굴조사 성과는 향후 영상으로 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교육발전특구 ‘관리’→‘선도지역’ 승격

교육공동체·인재육성 우수 평가
선도지역 선정 추가·예상 5억 확보

순창군과 순창교육지원청이 공동 추진해온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지난 13일 정부 평가에서 ‘관리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승격되면서, 추가 사업비 5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특구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순창군은 특히 교육공동체 간 협력과

지역 인재 육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순창군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난해 시범지역으로 처음 선정된 이후, 올해로 2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K·발효 바이오 산업 및 농촌유학 1번지’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발효미생물 산업과 연계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농촌유학 거점시설 및 특화 프로그램 확대, AI 기반 어학 교육, 어학 및 진로진학센터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선도지역 지정으로 인해 순창군은 기존 예산 129억 7천만 원에 더해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교육 혁신과 공교육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남상길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성과는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노력 덕분이며, 앞으로도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과 발효관광재단은 17일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장 담그기 문화’를 기념하는 특별행사를 열었다. <사진=순창군>

순창 ‘장 문화’ 유네스코 등재 기념 행사 성료

순창장류축제 대표 프로그램
전통 장 담그기 퍼포먼스 등

순창군과 순창발효관광재단은 17일 순창발효테마파크 앞 열린무대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장 담그기 문화’를 기념하는 특별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같은 기간 열린 제20회 순창장류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한국 전통 장 담그기 문화의 세계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 당일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아 장 담그기 시연 퍼포먼스, 전통 장류 명인의 참여,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을 함께 즐기며,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특히, 장류 명인·기능인과 시민이 함께한 ‘유네스코 등재 기념 장 만들기’ 퍼포먼스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참여형 행사로 큰 호응을 얻으며, 공동체적 전통 문화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유네스코 등재는 순창의 장 담그기 문화가 단순한 전통을 넘어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뜻”이라며, “앞으로도 순창의 발효 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세계가 인정하고 찾는 발효 도시 순창”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아동 안심승강장’ 설치…통학 안전 강화

용봉초 학생들 건의로 조성
아동참여예산 사업 편성·추진

완주군이 지난 16일 아동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안심승강장’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아동 안심승강장’을 통해 아동안심승하차존을 조성해 아동의 통학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사업은 용봉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완주군은 이를 아동의 정책 참여 사례로 반영해 2025년 아동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추진했다.

군은 2022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을 통해 아동 의견 수렴, 모니터링, 아동참여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 아동권리실현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와 실행을 확대하고 있다.

유희태 군수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것은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며 “완주군은 아동이 성인과 똑같은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드론제전 연계 청소년 진로 직업 박람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 16일~17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국제드론축제 with로봇 연계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첫날 행사에서는 캘리그라퍼 김소영씨가 붓글씨 캘리 퍼포먼스로 멋진 개막을 알렸으며, 유명 직업인으로 초대된 남도형씨는 성우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과 에피소드로 청소년들의 흥미를 이끌어냈다.

이번 박람회는 사전 의견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 6개분야 40여개 콘텐츠의 진로 직업체험부스를 운영했으며,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의견도 반영해 청소년 승승차량을 배차, 운행한 결과 전년대비

1,000여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로 NH농협 전북본부 인사팀 및 남원시지부에서는 N돌린 대학 봉사동아리가 참여해 은행원 직업에 대한 현장 1:1 멘토링을, 국민연금관리공단 남원순창지사에서 대학생 봉사단이 참여했다.

용성고에서는 신설된 학과를 소개했으며, 제일고에서는 헤어, 피부, 메이크업, 페이스페인팅, 네일 등 현장을 방문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했다.

남원시 청소년시설에서는 전문 진로상담지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 개인에 맞는 진로를 찾는 상담이 이뤄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보건소, 드론제전서 감염병 예방 체험부스 운영

남원시보건소는 지난 16일, 질병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행사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체험형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부스는 남원시가 감염병 예방 행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실천을 제고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2025년 지역 축제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행태 홍보부스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됐다.

운영 내용으로는 △부박스 체험(손세균 확인) △피클 맞추기(감염병 예방 행태 인식 개선) △OX퀴즈와 닥트

던지기(감염병 바로 알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단순한 체험 동시에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진드기 매개 감염병, 결핵, C형 간염,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모기 퇴치, 예방접종 등 실생활에 유용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함께 전달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참여형 감염병 예방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중견 공무원, AI 등
실무 역량·리더십 강화

완주군이 중견관리자 및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6·7급 중견실무자 리더십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육은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소양 대송한지마을에서 진행됐으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리더십과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조직 내 중간관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6급과 7급 공무원 40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Chat GPT 활용 오피스 실무과정 △직장 내 소통·갈등 관리 △성과 향상을 위한 협업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실무 중심의 학습과 더불어 조직 변화와 성과 창출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유희태 완주군수와의 소통 시간에서는 완주군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며 참석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참여 공무원들은 교육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 서로 배우고 공감하며 한층 성장한 만큼, 현장에서 완주군의 비전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자매도시’ 아산시 청소년
드론제전 참여 상호 문화교류

남원시는 지난 17일부터 18일 2일간 자매도시 충남 아산시 청소년 및 관계자 20명이 2025년 남원국제드론제전With로봇 행사에 참여하는 문화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아산시 초청으로 남원시 청소년이 아산시를 방문했으며, 2007년 11월 결연후 현재까지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더욱이 미래세대인 청소년 간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간 서로의 지역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아산시 청소년들은 17일 도착하여 드론 행사장에 방문하여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를 관람하고, △항공우주천문대 △화인당 한복 체험 △ 피오리움 관람 △ 서도역 △ 농촌체험 등 남원시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류는 남원국제드론 행사까지 참여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는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일거양득의 문화교류가 되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과장(김미옥)은 “앞으로도 남원시 축제 및 행사 일정에 맞춰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전북도민 헌혈의 날’ 맞아
군청사서 22일 캠페인 진행

완주군은 ‘10월 전북도민 헌혈의 날 기간’을 맞아 오는 22일 완주군청에서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

‘전북도민 헌혈의 날’은 도민들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2023년에 제정됐다. 매년 10월 4일을 기념일로 지정해 도내 전역에서 헌혈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최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헌혈자는 줄어드는 반면, 수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완주군도 건전한 헌혈문화 조성과 생명나눔 확산에 동참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완주군청사 앞 민원인 주차장에서 열린다.

건강한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헌혈 참여자에게는 혈액형·간염·간기능검사 등 건강체크 서비스가 제공되고, 봉사활동 4시간 인정, 헌혈증서 및 기념품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전주 상생 1차사업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첫 삽

193억 투입 폐정수장·부지 탈바꿈
1.7km산책로·수영장 등 단계 조성

완주군이 지난 17일 완주·전주 상생 1차 협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 착공식을 갖고, 지역 상생협력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 도의원·군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상생사업의 첫 삽을 함께 뚫다. 상관저수지와 정수장은 과거 전주시

의 상수원으로 활용된 중요한 수자원이었으나, 광역상수도 공급 이후 상수원 기능이 중단되면서 전주시의 폐쇄관리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그러나 2022년 11월 완주군이 전북도·전주시와 함께 상생협력 1차 사업으로 해당 부지를 개발사업 대상지로 발굴하면서, 버려졌던 공간이 새로운 생명력을 갖춘 지역의 힐링 거점으로 되살아나게 됐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193억 원(도비 76억 원, 시비 58억 원, 군비 59억 원) 투입해 추진된다.

먼저 노후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상관저수지 둘레 약 1.7km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정수장 부지(4만9,390㎡)에는 야외무대, 어린이 놀이터, 야외수영장, 힐링캠핑장, 숲속산책로 등 자연친화형 여가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상관저수지 일대를 자연과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힐링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완주와 전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의 모범 모델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드론제전서 국제드론레이싱연맹 발대

세계6대리그 협력체계 본격 가동
내년 국제연맹 사단법인 설립 목표

남원시는 지난 16일 2025년 남원국제드론제 행사장인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컨퍼런스장에서 세계 드론레이싱 산업의 발전과 국제 협력을 위한 국제드론레이싱 연맹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남원시장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 드론레이싱 해드리그 대표 등 각계각층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세계 각국의 드론레이싱 리그 대표들이 향후 연맹체계를 구축하여 드론레이싱이 전세계인이 즐기는 미래스포츠로 초석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1부에서는 드론레이스포츠 활성화와 국제컨퍼런스, 2부에서는 국제드론레이싱 연맹 출범식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 드론레이싱 해드리그 대표 등 각계각층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1부 국제컨퍼런스에서 DFL코퍼레이션대표를 비롯한 해외 드론레이싱 관계자들이 모여 DFL 국제드론레이싱 연맹 관련 다양한 의견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남원시는 16일 국제드론제전행사서 국제드론레이싱 연맹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남원시>

2027 DFL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했다. 2부에서는 남원시장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드론레이싱 관련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 DCL, 미국CPR, 한국 DFL등 6개 드론레이싱 리그들간 국제드론레이싱 연맹 출범을 선언했다.

지난 5월 1일 드론레이싱의 글로벌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레이싱의 현황 및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지난 7월

8일에는 글로벌 드론레이싱 연맹 창설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남원시는 2026년 6월 국제드론레이싱연맹 사단법인 설립을 목표로 세계 각국 드론레이싱 관련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유럽 DCL, 미국CPR, 한국 DFL등 6개 드론레이싱 리그들간 국제드론레이싱 연맹 출범을 선언했다. 남원시는 글로벌 드론스포츠를 선도하는 중주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감성으로 기록한 수학여행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현정)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키우고 자존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5 꿈드림 수학여행 - 기대찰각 서울-완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서울과 완주의 문화예술 공간을 탐방하며 사진과 영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예감(예술 감수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최근 열린 프로그램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12명이 참여해 서울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을 체험하는 '기대찰각 서울' 프로그램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감성', '여행 속의 나', 'K-POP'을 주제로 사진과 영상 미션을 수행하며 자신만의 시선을 담은 결과물을 제작했다. 특별로 K-POP 음악에 맞춘 댄스 영상을 촬영·편집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후 LG아트센터 서울로 이동해 뮤지컬 <맘마미아>를 관람하며 무대예술의 생동감과 열정을 직접 느꼈다.

/원주=김명곤 기자



완주 상관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관내 주민들 위해 100만원 후원

완주군 상관면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관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후원금 100만 원을 상관면사무소에 전달했다. 최근 열린 전달식에는 상관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박귀원 전 회장, 안산호(이장)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은 지난 5년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새원복합어울림센터가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준공된 데 대한 감사와 보답의 의미로 마련됐다.

안산호 회장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기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협의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상관면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주=김명곤 기자

전북도, '2025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신청 접수

전북도내 교직원 8명 대상

2025 제7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추천 접수가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어진다.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은 전북자치도 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교육가족들의 숨은 스승을 발굴하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19년부터 시작했다.

특히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은, 학생들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교직원을 조명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오고 있다.

위원회는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38일간 전북자치도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시상 부문은 초등학교 교원, 중학교 교원, 고등학교 교원, 교육전

문직 및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원, 대안학교 교직원 중 모범이 되는 8인을 선정해 상패와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학생·학부모·교직원 각 10인 이상, 총 50인 이내의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하고 추천서 또는 공적조서, 공적증빙자료 등은 이메일(www.arumdari@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제7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시상식은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위원회(위원장 두재균)'가 주관하고 전주현대교육과 아미존 완주가 후원사로 참여한다.

위원회 구성은 교육계 학부모와

교육계 및 시민 활동가 30여명 등으로 헌신하는 교직원 발굴에 최선을 다한다.

두재균 위원장(전북대학교 제14대 총장)은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직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격려를 해드리는 것이 이 상의 취지"라며 "교직원은 자부심과 보람을, 학생과 학부모는 존중과 신뢰를, 지역사회는 공동체 의식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www.arumdari@naver.com) 또는 집행위원장 이강선, 사무총장 박효정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정읍 농소동 새마을부녀회, 홀몸어르신에 밑반찬 나눔

정읍시 농소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6일, 홀몸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정성껏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부녀회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직접 식재료를 손질해 맛깔스러운 김치와 불고기를 만들었다. 정성으로 준비한 밑반찬은 농소동 관내 홀몸어르신 80가구에 직접 전달했으며, 일부는 내장상동 공유방장고에 기부해 더 많은 이웃과 나눔의 정을 함께했다.

현복현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소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 나눔·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 활동에 앞장서 귀감이 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부안 어르신, 2025 실버문화페스티벌 공모전 인기상 수상

다듬이난타로 무대 빛내다

부안군 어르신 35명이 지난 9월 28일 경남 김해에서 열린 '2025 실버문화페스티벌' 어르신 문화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본선 무대에서 '인기상(상금 30만 원)'을 수상했다.

실버문화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주관하여 전국 각지의 노년 세대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공연을 선보이며 예술적 역량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자리다.

이번 공모전에서 부안 어르신들은 전북 대표로 참가해 전통 다듬이 장단과 타령을 뮤지컬적 요소로 재구성한 창의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무대에 오른 35명의 어르신들은 나쁜 기운(악)을 막아 주고 복을 부르는 '액막이타령'을 주제로, 힘찬 다듬이소리와 사실로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완벽한 호흡과 합을 선보인 단체 퍼포먼스는 관객은 물론 다른 참가팀들로부터도 큰 박수를 받았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주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숲체험 행사 성료

전주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강연자)는 17일 송천동 건지산 일원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주시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모와 함께하는 숲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가정어린이집 영유아들은 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숲속을 거닐면서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참여한 영유아들은 △야생장미 △숲속 걷기 △파파리 만들기 △뱀장어 놀이 등 부모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안정까지 느낄 수 있었다.

강연자 회장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가족과 함께하며 유대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장수군 4-H연합회, '일일주막' 자선기금모금행사

장수군 4-H연합회(회장 문광식)는 지난 16일 한누리전당 다목적체육관에서 '일일주막' 자선기금모금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일일주막'은 2014년부터 매년 이어온 4-H연합회의 나눔 행사로, 회원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운영해 얻은 수익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장수한누리전당 다

목적체육관에서 '일일주막'을 열고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많은 군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돼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더했다.

문광식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청소년광한루원해설사, 아산 청소년들에 광한루원 해설 진행

(사)삼동청소년회가 운영하는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관장 서대현)은 지난 16일, 남원의 대표 문화유산인 광한루원에서 '청소년광한루원해설사'가 1박2일 남원을 방문한 아산시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소년광한루원해설사'는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청소년들이 광한루원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또래 방문객들에게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청소년 주도형 문화해설 활동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광한루원해설사들이 남원을 방문한 아산시 청소년들에게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는 해설을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역사 설명에 그치지 않고, 해설 내용을 바탕으로 한 퀴즈 풀이와 선물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현장에는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찼다.

/남원=정하복 기자

개인이 실천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대중교통이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장바구니사용!

플라스틱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



스마트 영수증!

종이영수증대신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전자 영수증 받기



텀블러 사용!

플라스틱 일회용컵,
종이컵대신 개인
텀블러사용하기



올바른 분리배출!

올바른분리배출, 자원
순환율이 높은 투명
페트병분리배출!

〈一事一言〉



북한 핵위협 대응하는 무시무시한 우리 무기체계(1)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이해 핵무력 고도화의 핵심축이라며 극초음속 활공체(HGV) 탄두의 중거리용 화성-16형, 단거리용 화성-11마형 미사일과 최강의 전략핵무기 체계라며 다탄두각목표살정재 돌입비행체(MIRV)를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을 선보였다. 이 자리엔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 러시아 전 대통령을 지낸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그리고 베트남 푼똌 당총비서 등이 참석해 이를 지켜보았다.

작년 10월 7일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종합대학 연설에서 한국군을 조롱하며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허울뿐”이라고 비하하고, “행운도, 그 무슨 ‘신의 보호’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 발언은 한국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반감 때문인지,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도 국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자체 핵무장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년 1월 28일 미국 핵과학자협회(BAS)가 발표한 ‘윤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는 인류 종말을 뜻하는 자정까지 89초가 남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1947년 첫 발표 이후 인류가 가장 최악의 재앙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BAS는 재앙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의 핵무기 증강,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위협,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를 들고 있다.

현재 북한이 개발해 실전배치

단계에 있는 전술핵탄두는 화산-31형으로, 10kT(TNT 10,000톤)의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 탄두의 핵능력을 입증할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전문가들의 추정 수치일 뿐이다. 과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탄두의 폭발력 15kT와 21kT의 2/3 내지는 1/2수준이다.

북한의 전술핵탄두 화산-31형은 지름 40~50cm으로 추정되는데, 북한관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인 KN24, 600mm초대형 방사포 KN25, 순항미사일 화살1, 순항미사일 화살2, 무인잠수정 해일, 잠수함 탄도미사일 미니SLBM 등과 같은 투발수단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다. 이번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극초음속탄도미사일 화성-16형이나 KN23 계열의 화성-11마형에도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는 인류 종말을 앞당기는 재앙이므로 보유해선 안되며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당장 북한 핵위협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인류 종말의 위기에 앞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그렇다고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이나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반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의 보유·반입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현실적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책에는 핵무기로 대응하는

방안 외에 다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비핵화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세부적으로는 △북한 비핵화의 실현, △‘핵 가진 북한’과의 평화공존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비핵화 포기’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과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주장하고 있어 둘 다 지난한 과제들이다. 다른 하나는 고위력 재래식무기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대응하는 방안이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리 군이 북한의 화산-31형을 상대로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가? 북핵 대안으로 떠오른 ‘고위력의 재래식 무기’는 바로 현무 미사일 시리즈다. 과연 김정은의 말대로 한국의 군사능력은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허울”에 불과한가? 현무-5보다 한 단계 아래인 현무-4의 위력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를 보자.

2021년 4월 3일자 〈조선일보〉는 “[단독] 현무-4 단 1발로 북 금수산태양궁전 완파 가능”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당시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도료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풀기 위해 고심하던 때여서, 이 기사에서는 북한을 자극하려는 〈조선일보〉의 의도가 읽혔다.

이 기사는 군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현무-4 미사일의 위력에 대

해 △집속탄을 장착할 경우 단 1발로 축구장 200개 이상 면적의 초도화 가능, △고폭탄 탄두를 장착할 경우 단 1발로 평양 급수산 태양궁전의 완파 가능, △지하 관통탄 탄두를 장착할 경우 지하 100m 이하의 김정은 위원장 병커도 무력화 가능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당시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1979)에 따라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현무-4의 위력을 설명하면서도 사거리는 300km라고만 소개되었다.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대가로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철폐’를 받아들였다. 그 이후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현무-4를 능가하는 최신헌 현무-5 미사일이 처음 공개되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AI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전북형 K-푸드 미래

전북자치도가 미래 식품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17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열린 ‘K-FOOD NEXT 포럼’은 전북이 명실상부하게 AI·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미래 식품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이자 실천의 출발점이었다. 포럼에는 식품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글로벌 식품산업 흐름 속에서 전북형 커스텀푸드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식품 생산기술, 정부의 푸드테크 육성 방향, 산업 확산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전북의 식품산업이 단순한 지역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북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농식품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식품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들이 긴밀히 협력하며 식품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이끌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가 추진 중인 ‘AI·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커스텀푸드 산업벨트’ 조성 전략은 산업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도는 현재 총 1,875억 규모의 14개 연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도정의 일관된 정책 추진력과 민관 협력의 실행력이다. 그동안 많은 지역 전략산업이 초기에만 화려하다가 중장기 추진 단계에서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다. 전북형 커스텀

푸드 산업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의 조정역할과 함께 기업의 혁신투자,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대학의 인재 양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특히 AI와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인류의 식생활 전반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 기술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식단을 제시하는 AI 커스텀푸드는 고령화 사회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접목한 기능성 식품 역시 질병 예방과 웰스케이 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분야는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자원, 발효·식품기술, 의료·바이오 인프라와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전북은 이미 메디컬푸드, 케어푸드, 푸드테크 등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도정이 추진하는 ‘지역과 산업이 건강한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벨트’ 비전이 차질 없이 실현된다면, 전북은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심장부로 부상할 것이다.

이제 식품산업은 AI·데이터·바이오가 융합되는 첨단 미래산업이다. 전북이 이 흐름의 중심에서 국가 푸드산업의 방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도정의 전폭적인 지원과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은 농생명산업의 전통 위에 AI 혁신의 날개를 더해, K-푸드의 미래를 여는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북이 기술과 사람, 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미래 식품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

문화재열전



임실이도리미륵불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불교조각, 석조, 불상
-지정일 - 1993년 8월 31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임실군 봉황10길 109
(임실읍, 운수사)

▲오늘의시

저녁 / 송기원

새의 그림자가 길게 끌로 가는 것은 누구일까
땅거미가 야금야금 갈아 먹는 것은 무엇일까
붉은 옷의 승려가 사는 서녘에서는
마지막 시계가 연기를 피워 올리고

떠난다거나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이미 먼 세상의 일이다
서른세 번, 망자를 거두는 종이 울리면
어렵사리 내가 붙잡는 나머지 사라진다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74년 단편소설 ‘경외성서’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회복기의 노래’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4차례 옥고를 치렀다. 소설 처자식

과 아름다운 얼굴, 시집 그대는 언제나 밖에, 수필집 해남 땅끝에 가고 싶다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제2회 신동엽창작기금, 제6회 김동리문학상, 제11회 대산문학상 소설 부문 등을 수상했다.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10.10(목)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경영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환절기 질환, 예방법



꾸준한 운동



풍부한 비타민성 음식섭취



적당한 수분 섭취



충분한 수면과 휴식

고창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빛나는 우리’



1. 장애인인식개선 공연
2. 걷기캠페인
3. 장애인일자리사업
4. 장애인의날 행사
5. 장애인의날 행사
6. 걷기캠페인



고창군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노력을 기울이며 포용적인 지역 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 상향,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활성화 등을 비롯하여 장애인일자리 확대하고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실 구축 추진까지 모든 군민이 행복한 고창을 만들어가는 희망찬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편집자 주)

▲ 따뜻한 공감과 화합의 장, 장애인의 날(4.20.) 기념 다양한 행사 개최
고창군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는 감동적인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식교육(4월2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관)은 지금까지 진행된 강의형 교육 방식을 문화·예술 공연으로 변형해 군민에게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재활의욕을 향상하기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도 열렸다.

'썩썩썩 걷기' 캠페인은 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고인돌박물관 공원까지 천변길을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소통과 힐링의 시간을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장애 유무를 넘어 모든 참가자가 고창군을 이루는 소중한 구성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경험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고창군의 문화로 남도록 공연과 기념행사, 캠페인을 매년 지속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 맞춤형 돌봄 강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 상향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2025년부터는 장애 미등록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되어 648명의 아이들이 신청 대상이 되었으며 혜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언어, 미술심리, 행동발달 등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대상아동에게 적기에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행복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같은 경험, 깊은 공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활성화

장애인 개인의 강점과 경험을 활용하여 다른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직접 동료상담가로 나서 같은 어려움을

장애인의 날 기념 다양한 행사 개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 상향

공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활성화

겪는 이들을 상담하며 상담참여자를 돕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상담참여자였던 장애인이 상담가가 되거나 자립하여 일자리를 찾는 등 사회참여 및 사회복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전망이다.

▲ 가상현실(VR) 스포츠체험실 개설로 디지털 스포츠 활력 UP!

오는 11월부터는 고창군에서 장애인이 보다 쉽고 즐겁게 스포츠를 경험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실이 고창군장애인복지관에 문을 열 예정이다. 양궁부터 축구, 다양한 구기종목 등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여러 스포츠종목들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게 되면서, 장애인의 생활 체육 활성화와 건

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정적인 삶을 위한 든든한 동행, 장애인 일자리 확대

고창군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이러한 노력이 더욱 빛을 내면서 올해 장애인 일자리에만 11억원의 예산 확보로 총 70여명의 장애인이 사회복지시설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었다. 행정도우미, 환경정화업무,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당당히 일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 장애에 무관하게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내일을 만드는 고창군

고창군은 앞으로도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한다. 돌봄사각지대였던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확립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인 반다비체육관이 장애인복지관 등이 있는 고창읍 율계리 사회복지시설지구 내에 2027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장애인의 날 행사부터 디지털 스포츠까지, 고창군은 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존중하며 모두가 행복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D 전북타임스
🔍

정론직필의 원칙을 따르며,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금암동)5층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3